

아마추어 축구선수들의 슬부손상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동철 · 손욱진 · 배상근

서 론

아마추어 축구선수들의 슬부 손상의 형태를 분석하고 치료 후 기능 회복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및방법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축구로 인한 무릎 손상을 받은 아마추어 축구선수 수술적 치료를 실시한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29.2(14~45)세였으며, 남자가 64례로 대부분이었다. 평균 F/U 기간은 10(8~36)개월 이었다. 손상 정도는 이학적 소견, 단순방사선 및 stress 사진, 자기공명사진, 진단적 관절경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슬후 기능평가는 최종 추시시 기능도는 Lysholm score를 활동도는 Tegner score이용하였다.

결 과

인대손상에 따른 분류는 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 34례, 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이 10례,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의 동반손상이 4례였으며, 전방 십자인대와 외측 측부인대 동반손상이 3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 인대 동반손상이 2례였다. 관절연골 손상에 따른 분류는 대퇴내과 단독손상 10례로 가장 많았고, 대퇴외과와 슬개연골 동반손상이 5례, 대퇴내과, 경골외과와 슬개연골 동반손상이 2례를 보였다. 손상의 적절한 치료 후 대부분 손상전 기능으로 회복이 되었다. 손상시기는 주로 후반전에 발생하였으며, 계절적으로 겨울에 많은 손상이 발생하였다. 손상의 기전은 Tackling 30례, Running 15례, Twisting 10례, Jumping 10례로 나타났으며, 축구 빈도에 따른 손상은 1달에 2~3회 정도 자주 축구를 하지 않는 50례가 대부분이었다. 손상시 기능도와 회복도는 각각 45, 2점이었으며, 최종추시시 85, 6점으로이였으며, 내측연골과 전방 십자인대손상군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다.

결 론

축구로 인한 무릎 손상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었으며 다발성 손상 후 결과가 나빴으며 치료 후 대부분 손상 전 기능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손상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근피로가 가중될시 무리한 경기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